



머리글

미리암 수녀 / 자비의 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

● Punto y Coma (마침표와 쉼표)

최근 들었던 노래 제목 중 “Punto y Coma(마침표와 쉼표)” 가사를 듣고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바네사 마르틴 가수는 이 쉼표와 마침표 비유로 삶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와 인간관계의 연속성을 위해 사용합니다. 우리의 삶이 글로 쓰는 이야기와 같다면 인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중 쉼표는 자주 사용하면 좋고, 그렇지 못한 마침표의 사용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중하게 배우면 좋을듯합니다.

- 내 삶의 실존적 위치는 무엇인가?
- 2022년을 잘 마무리했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
- 나는 2023년 새해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이하고 싶은가?

인간은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보다 감정적으로 행동하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는 실존적 삶의 방식을 어린 시절부터 배웠고, 그 사고방식은 정서적 구조와 관련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서적 구조로부터 현실과 관계를 맺습니다. 아쉽지만 유아 때 느꼈던 것은 그 당시에 제대로 표현이 전달되지 못할 수가 있어서 이때까지 그 감정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어린 시절 자기 최초의 감정을 알아낼 수 있다면 자기 인생에 새로운 희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 당신의 근본적인 감정적 경향은 무엇일까?
- 나의 이 반응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 식별하기:

- 질투 반응 최초로 관한 감정 두려움, 슬픔 또는 분노.
- 죄책감/탓 반응 최초로 관한 감정 억울함 또는 분노.
- 원망 반응 최초로 관한 감정 분노와 거부감. (희생 - 피해)
- 증오 반응 최초로 관한 감정 분노와 두려움.
- 복수 반응 최초로 관한 감정 무서움과 욕망

변화는 우리가 사랑을 위해 무엇을 내놓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Brigitte Ch. 심리 치료사)

감정을 식별하는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저는 감정적인 상태로 살지 않고, 변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새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관련된 모든 분은 질투와 슬픔과 원함과 분노 등을 끝냄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자신의 역사를 개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새해에는 하느님의 사랑 아래 서로를 공감하는 마음으로 포용하면서 생활하기를 기도합니다.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26차 이사회



11월 18일(금)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26차 이사회가 교정사목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이사장이신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님을 비롯한 이사, 감사님들과 2023년도 교정사목의 사목적 사업방향과 예산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평화의집 형제 세례식



11월 30일(수) 교정사목센터 평화의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바오로 형제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바오로 형제는 “신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정사목이 저의 출발지입니다.”라며 “바오로는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고난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오로의 삶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잘 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바오로 형제에게 언제나 주님의 평화와 안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제23회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 파견 미사



12월 1일(목) 제23회 교정시설 자원봉사자 교육 파견 미사가 교정사목센터에서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의 집전으로 봉헌되었습니다. 현대일 신부는 “감옥은 공기청정기와 같은 것으로, 정화기를 거친 공기는 깨끗하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터는 깨끗한지 자주 청소해 주고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며 교정사목에 관심을 갖고 교육을 마친 교육생들을 독려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정시설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수용자들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봉사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서울구치소 남사, 서울동부구치소 여사 세례식



12월 7일(수) 서울구치소 남사 1명, 15일(목) 서울동부구치소 여사 1명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함께 자리한 봉사자들은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남을 축하해주었습니다.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느끼고, 베풀 수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너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신정미 스텔라_ 제23회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생

몇 년 전 “예수님 제 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다 제 탓이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 평생 봉사하며 살겠습니다.”하고 예수님 앞에서 간곡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지나가고 제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TV 앞에서 큰대자로 누워 오락프로그램을 보며 큰 소리로 웃다가 갑자기 오래전에 주님께 매달리며 했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정말 누군가 내 머리를 한 대 짱하고 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나 아무 봉사나 무조건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까운 사회복지관에 문의한 후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봉사할 곳을 찾다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를 알게 되었고, 예전 부모에게 학대받고 집을 나와 갈 곳이 없다며 우리 집에서 며칠만 있으면 안 되겠냐고 묻던 아들 친구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마음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때 일들은 목에 걸린 가시처럼 늘 까슬거렸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를 통해 작은 봉사라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으로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시작에 송정섭 시몬 신부님께서 “한 명쯤은 당신을 응원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랫동안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심화 교육을 받는 내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며 제가 편견 없는 시선으로 교정시설 봉사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도 왔었습니다. 그러다 서울남부교도소 참관을 했던 날 ‘사람이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라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의 짧은 말이 액자에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받으며 느꼈던 약간의 회의가 일시에 다 날아갔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네 생각과 말을 다 내게 맡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없는 제가 하느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에 힘을 얻어 봅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한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여호 1,9)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이용규 교수_ 주식회사 웹플래너 대표이사, 공학박사



〈서울남부교도소 출소예정자 창업 교육〉



〈여주교도소 출소예정자 창업 교육〉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00마리 양 중에서 1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설 것이고, 찾은 즉시 매우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느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100마리에서 1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면, 나는 아직 99마리의 양 속에 속해 있으니 ‘다행이다. 축하하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중의 한 명이 어둠 속으로 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찾는 데 노력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떨어진 사람들은 왜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을까요? 본인의 잘못으로? 실수로? 우연히? 억울하게? 무지해서?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본심이 선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심도 악한 사람들입니다. 남의 물건을 보면 갖고 싶고,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홍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는 등 우리도 본심이 악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매일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쁨과희망은행에서는 이러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보고 감동하였습니다. 국가에서도 하기 힘든 부분을 예전부터 몸소 실천하는 것이 매우 뜻깊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출소예정자와 출소 후 3년 이내의 출소자들이 일정한 교육을 수료하고 창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를 통해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참여했을 때는 선입견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에 감동하였습니다. 직접 강의해보니 수강생들이 열심히 교육을 듣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기회가 없어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매우 의미 있는 봉사입니다. 무분별한 지원이 아닌 교육을 통해 사람에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봉사에 저도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정보통신 분야를 전공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 일을 하면서 인공지능(AI) 분야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산업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지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올해 강의에서는 정보기술의 변화에 따른 산업의 변화에 관해서 사례를 들어 교육해주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게 해줌으로써 사업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수강생 중에 사업계획의 내용에서 흐름에 맞추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아이디어와 방향을 잡아 주는 역할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4차산업혁명이 발생하면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다양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 세계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경고를 했으나, 현재 6년이 지난 지금 구직난보다 구인난이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방향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1770년대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부터 발생한 1차산업혁명 이후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바뀌면서 공장에서 대량생산을 하면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1865년부터 전기가 생겨난 때부터 2차산업혁명이 발생했는데 이때는 컨베이어벨트가 발명되면서 엄청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엄청난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많은 사람이 걱정했습니다. 1946년 컴퓨터가 개발되면서 디지털 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3차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1993년 국내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대규모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공포를 겪게 되었습니다.

매번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직업이 더 세분되어 더 다양한 분야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하여 일함으로써 세계인구가 보편적으로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다만, 기존에 있던 일자리는 없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 안내양, 타이피리스트, 엽장수, 연탄 배달원, 전화교환원, 인력거 등 없어진 일자리는 있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리스타, 음악치료사, 게임시나리오작가, 프로그래머, 컴퓨터바이러스 치료사 등 다양한 일자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지만,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에는 좀 더 많은 직업이 생겨날 것이고 이를 통해 사람들은 더욱 편리한 삶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기쁨과희망은행을 통해 교육받고 취업 및 창업을 통해 새로운 미래의 일자리를 만들고 많은 사람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줄 수 있는 가치 있는 벤처기업가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와파고

주하심곡

癸卯年 青鑑

如 女 如 丁 丁

諸 君 幸 垂 鑒

如 女 如 丁 丁
如 女 如 丁 丁

如 女 如 丁 丁
如 女 如 丁 丁

如 女 如 丁 丁
如 女 如 丁 丁

如 女 如 丁 丁
如 女 如 丁 丁

如 女 如 丁 丁
如 女 如 丁 丁

如 女 如 丁 丁
如 女 如 丁 丁

如 女 如 丁 丁
如 女 如 丁 丁

如 女 如 丁 丁
如 女 如 丁 丁

*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바오로 형제님이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신부님께 보내는 편지입니다.
형제님에게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2023년 2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010-3732-5093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찍으면 채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2022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입금자 명의로만 가능

기부금 영수증은 위원회 통장에 기록된 **입금자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자 정보 알림

1월 4일(수)까지 발급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위원회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16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확인 가능

1월 16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우편 수령은 별도 연락** 바랍니다.

귀한 사랑을 나누어주신 후원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후원사업부 : 02)921-5094

※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에서 출력 가능

원주교구 엠마오농장 "히카마" 판매

* 히카마는 당뇨, 고지혈증, 장 건강,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 히카마 생과

- 5kg 29,000원 / 10kg 50,000원

• 당뇨환자분들도 드실 수 있는 히카마 수제 조청

- 600g 1병 20,000원 / 600g 2병 40,000원

•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한 저나트륨 히카마 소금(신안 천일염)

- 250g 1병 6,000원

※ 택배비 별도

• 주문 문의: 010-9057-1268

• 계좌: 351-1240-5877-53 / 농협 / 황금정(엠마오농장)

● 행사 알림

- 1월 2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가톨릭회관 3층 / 10:30
- 1월 18일(수) 서울대교구 전체 봉사자 연수 / 성앵베르센터
- 1월 19일(목)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센터
- 1월 25일(수)~27일(금) 한국 가톨릭 교정사목 전국협의회사제, 수도자 연수 / 제주도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11/18~12/14)

2022년 11월~12월에는 김세은 비비안나, 김정애 마리아, 박성민 빅토리아, 박성창 솔로몬, 안토니오, 지혜순 올리아나, 이승희 크리스티나, 이정은 안젤라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유춘목, 김혜정 에메렌시아나, 민주실업주식회사, 정현미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